



혁신당 수성이나... 민주당 탈환이나

정철원 현 군수에 맞서 여당 후보 대거 출마 전망

담양군수

전국 유일의 조국혁신당 기초단체장인 정철원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 진영에선 중진과 신예, 중앙정치 무대를 경험한 후보들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다자구도가 예고되고 있다.



정철원 김경호 박종원 이재중

정철원 군수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표심을 결집시켜 당선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제7·8·9대 담양군의회에서 의장을 두 차례 지내고, 부의장·운영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균형 전반에 밝은 인물로 평가된다. 금성면 주민자치위원장, 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군민들과 오랜 기간 호흡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짧은 시간에 군수직에 올랐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도 얻었다. 이제 정 군수에게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고, 군민 체감도를 높여 재선 동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군의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농업·복지·SOC 등 주요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 강점을 인정받고 있다.

김경호 전 담양군의회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낸 인물이다. 생활 현장에서 군민들과 밀착해 민원을 해결하는 풀뿌리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중앙정치 경력을 앞세운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가 유력하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부대변인,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중앙 무대에서 정책 기획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다. 지난 재선거에서 어렵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조직 기반 강화에 공을 들이며 제도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혁신당 현역 군수의 수성'과 '민주당 경선 승자의 도전'이라는 구도가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정철원 군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등장했지만, 민주당은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지역 조직과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곧 본선의 분수령이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상래 군수에 전직·제3지대 '도전'

유근기 전 군수 등판시 당내 경선... 조국혁신당 '다크호스'

곡성군수

내년 지방선거에서 곡성군수 선거는 세 가지 변수가 맞붙어 주목받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조상래 군수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이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근기 전 군수의 재등판시 당내 경쟁 구도에도 눈길이 쏠린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박응두 위원장이 다시 도전할 경우, 민주당 일색이던 지역 선거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련 포인트다.



조상래 박응두 유근기

내년 곡성군수 선거 출마 예상 인사는 현직 조상래 군수를 비롯해 유근기 전 군수, 그리고 박응두 조국혁신당 곡성·구례 지역위원장 등이 꼽히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지난해 10월 재선거에서 55.26% (8706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 2번 도전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취임 이후 그는 혼란스러웠던 군정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며 '안정적 군정 운영자'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올해에도 전 군민 버스 무료와 정책을 비롯해 군민 기본소득 지급, 교육·문화·예술 중심의 명품 농촌 육성, 가축분 퇴비 무상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곡성이 정원하다' 프로젝트 추진, 파크골프장 36호 조성, 바로폰 제도 시행,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도입 등 급진적 생활밀착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근기 전 군수가 조 군수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꾸준히 거론된다. 유 전 군수는 제45·46대 곡성군수를 지내며 민선 6기와 7기, 8년간 곡성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 도전을 꾀고 불출마했지만, 2024년 총선에 출마를 모색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 오르지

못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에도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 유력 인사' 명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독주 구도를 흔들 잠재적 변수는 조국혁신당이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박응두 위원장이 35.85% (5648표)로 2위를 차지하며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박 위원장은 1990년 곡성으로 귀농한 뒤 농민운동과 교육·시민사회 활동을 두루 경험한 풀뿌리 인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곡성농민회회장, 전남 교육희망연대 대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농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작년 재선거에서는 조상래 후보의 썬더볼급 부정 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재선거에 후보를 내며 존재감을 알렸다.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곡성을 찾아 지원했고, 최봉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3.48% (549표)에 그치며 무소속 이성로 후보 (5.39%) 보다도 낮은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다. '호남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현실을 보여줬지만, 국민의힘이 차기 선거에서도 후보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순호 3선 도전...당내 경선 이겨낼까

장길선 군의장과 승부...무소속 후보 본선 경쟁

구례군수

현재 구례군수 선거 구도가 뚜렷하다. 김순호 현 군수의 3선 도전과 이를 견제하려는 도전자들의 '맞바람'이다.



김순호 김승식 이창호 장길선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김순호 군수는 재선 기간 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3선 고지에 도전한다. 민선 7·8기를 이끈 그는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지역 유치로 구례의 신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민과의 소통, 장기 관점의 정책 추진”을 표방하지만, 출마 여부는 “시기를 보며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군수 도전을 저울질했던 이창호 구례군의회도 재등판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민주당 경선에 나섰으나 본선행 티켓을 얻지 못했고, 2022년엔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다수 무소속이 난립하자 군의원 선거로 전략을 바꿔 당선됐다. 선거 판의 급변에 대응해 진로를 조정했던 경험이 이번엔 “경선·본선 모두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승식 전 구례군의회 의장도 꾸준히 입김이 오른다. 제6·7회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당선된 중진으로, 지역 민원과 현안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평가받는다.

이들 모두 민주당 권역에 발을 담고 있어 경선의 파열음과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선 방식(당원·여론 비율)과 시기, 단일화 여부가 초기 판세를 가르는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특성상 얼굴·이름 인지도, 조직 결속, 국·도정과의 협업 창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표심에 바로 닿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현직 vs 신진' 한판... 민심 향방 주목

공영민 재선 가도에 김학영·류제동·박준희·신순식 도전장

고흥군수

고흥군수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공영민 현 군수와 민주당 내 다자 주자들이 공전장을 두고 맞붙는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영민 김학영 류제동 박준희

공영민 군수는 실적과 연속성을 정면에서 세웠다.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부합동평가(2024년 실적)'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민선8기 공약 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다.

공영민은 “현직의 지속과 사업 마무리, 도전자들은 교체와 동력 전환을 각기 논리대로 세운다. 숫자로 확인된 지표는 실득의 출발점이지만, 군민의 체감은 생활과 현장에서 완성된다.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줄였는지, 예산이 실제 변화를 낳았는지, 군민 삶의 질을 올렸는지에 대한 응답이 표심의 무게추를 바꿀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도전자들은 각자 강점이 분명하다.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은 7급 공채 전국 수석, 입법·행정고시 동시 합격, 재무부·전남도청·국회사무처·청와대·경찰청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 네트워크'와 '예산 동원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현직 이력을 앞세운다. 군의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생활 현안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실행력 있는 군정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가치를 들었다.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심의 과정을 오래 겪어온 만큼 “군이 무엇을 담당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실무 강점을 부각한다.

박준희 전 도당읍장은 가장 먼저 몸을 던졌다. 명예퇴직 후 일찌감치 지역을 누리며 표심을 다졌다. 지방고시 출신으로 군의회 전문위원, 기획실장, 관광정책실장, 금산면장, 고흥읍장 등을 거친 '군정 풀코스'가 자산이다. 본선 경쟁력과 행정 연속성

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끝까지 완주' 의지를 고수한다.

신순식 전 전남체신장은 24회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국무조정실 과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1년여 전부터 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며 인지도를 쌓고 있다.

정당 외적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공천 여부도 결정될 경우, 본선 구도는 지금과 다른 결을 띌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민주당 경선이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선의 관건은 결국 유권자들을 향한 '실득의 방향'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은 성과의 지속과 사업 마무리, 도전자들은 교체와 동력 전환을 각기 논리대로 세운다. 숫자로 확인된 지표는 실득의 출발점이지만, 군민의 체감은 생활과 현장에서 완성된다.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줄였는지, 예산이 실제 변화를 낳았는지, 군민 삶의 질을 올렸는지에 대한 응답이 표심의 무게추를 바꿀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현직 프리미엄' vs '변화론' 승부 예고

김철우 군수 3선 도전에 임영수·선형수·윤영주 도전

보성군수

현재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김철우 군수, 임영수 전 전남도의원, 선형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 등 4명이다.

비율 확보해 SOC와 생활 인프라에 투입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가족 변수가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맞서는 도전자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우며 추석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임영수 전남도의원이다. 보성군의회 4선, 전남도의회 2선 등 총 6선을 지내며 지역 정치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풍부한 외경 경험과 두터운 인맥,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으로 쌓아온 조직력이 강점이다. 그는 군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을 중시하며 “전시행정이 아닌 현실 행정”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도 지역 행사와 교류 현장에 꾸준히 모습



김철우 선형수 윤영주 임영수

을 드러내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관료의 정치인으로서 현직 프리미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형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생활문화와 공동체 의제를 앞세우며 도전장을 냈다. 보성 출신으로 군민상 수상 이력을 갖고 있으며, 체육·청소년·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지역 미술인·작가들과 함께한 문화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행사를 통한 공동체 기여가 높게 평가된다.

가장 최근에 출마 의지를 드러낸 인물은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다. 복내면 출신으로 35년간 순천·화순·영광·진도군과 전남도

정을 거치며 행정 현장을 누볐다. 영광군 투자유치과장 시절 200억 원 규모 투자기금을 조성했고, 진도 부군수 재직 당시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이끌었다. 윤 전 부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출마기념회를 열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그는 벌교 포막 산업 육성, 주민조합형 태양광사업, 웰니스 산업, 주민기

본소득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보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실행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보성은 다른 지역보다 경선 결과의 파급력이 크다. 김철우 군수의 3선 도전 여부, 임영수 전 의원의 관료와 조직력, 선형수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문화·공동체 비전, 윤영주 전 부군수의 행정 경험과 정책 구상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맞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